

제 2 강. 이상적인 교회 세우기

1. 이상적인 교회란 지금도 존재한다.

이상적인 교회란 흠이 없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와 방법을 그대로 실천하는 교회를 의미한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교회나 서신서에 나오는 교회나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들을 보라. 그들도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똑같이 문제 있는 죄인에 불과하며 그들이 창출해내는 문화 역시 동일한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사도행전적인 이상을 추구하는 교회이다. 오순절날 임하셨던 성령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임하신다면 사도행전과 같은 동일한 사건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날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그러한 이상적인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수많은 요소 중에서 핵심적인 세 요소를 선택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둘째, 평신도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

셋째, 목적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

2. 이상적인 교회의 세 요소

1)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

시대를 초월하여 어떤 형태의 교회이든지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는 ‘그 교회가 성령님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인가?’ 하는 문제이다.

성령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교회는 없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교회는 많다. 성령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목회자는 없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목회자는 많다. 문제는 목회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요,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게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는 잉태한 생명과 같다. 태아는 아무도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교회는 출산한 아이와 같다. 모든 사람이 그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울음소리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자라나서 장성한 자로 성장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는 밭에 뿌려진 씨와 같다. 그 씨가 땅에 뿌려져 있을 때는 아무도 그 나무의 모습이나 생김새를 볼 수 없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교회는 땅에서 솟아난 줄기와 같고 나무와 같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나무이다. 그 나무는 성장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에서 시작된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한마디로 성령으로 출산된 교회이다. 이것이 교회의 알파와 오메가이다. 성령에 의해 시작되고 성령에 의해 운행되고 성령에 의해 성장하는 교회이다.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으로 충만해야한다. 교회론이나 목회철학, 예배나 사역, 설교나 양육, 전도나 선교 등 그 어느 하나 성령을 빗겨갈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지수는 곧 교회 성장지수가 된다.

이상적인 교회는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이다. 성령에 의해 운영되는 목회란 첫째,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의해 운영되는 목회이며 둘째, 성령의 역사가 우선하는 제도 안에서 운영되는 목회를 뜻한다.

2) 평신도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

이상적인 교회는 전문 목회자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이다.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교파나 교단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는 목회를 해왔다. 신학교와 그 교단의 교리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 신학교와 교리로 무장한 안수 받은 목회자를 파송하여 교회를 개척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본질인 성도들은 자기의 설자리를 잃어버리고 단순한 목회의 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고 만 것이다.

평신도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는 아름답고 감동적이다. 그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봉사를 통해 교회가 움직이고 세워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보게 된다.

교회는 평신도들의 은사가 유감없이 나타나고, 그들의 리더십이 발휘되는 곳이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은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들이다.

목회자는 평신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능력 있게 살게 하며, 그들의 전문성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평신도들이 이 세상에서 그들 스스로가 교회가 되도록 비전을 줄 수 있어야 한다.

3) 사명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

이상적인 교회는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이다. 그 목적이란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다. 교회의 사명은 성도로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다. 동시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모든 사람을 제자 삼는 데 있다.

어떻게 전도 할 것인가? 어떻게 전도된 사람을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양육된 그들을 세상에 내보낼 것인가?

그러므로 교회는 어느 특정한 사람들이나 전통이나 재정, 제도, 건물, 행사 등에 의해 움직여 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교회에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방법이지, 교회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원동력이 될 수는 없다.

교회의 지도자는 성도들의 초점과 관심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에 모아지도록 이끌어야 한다.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명에 맞추어질 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3.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1) 예배 공동체 (참된 예배자)

예배란 주님의 몸 안에 있는 심장과 같다. 심장이 건강하고 잘 뛰면 온 몸의 모세혈관과 세포들도 살아 움직인다. 아무리 장거리를 달린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활동을 하면 할수록 힘이 생기고 활기가 넘친다. 대부분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특징은 주일 예배가 죽어 있다는 데 있다. 전통적인 교회의 특징도 예배가 형식적이고 굳어져 있다.

교회의 부흥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며 교회 성장도 예배의 개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무엇보다 이상적인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는 예배에 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 생명력 있는 설교, 향기 나는 예배, 찬양이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나는 예배가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다.

이상적인 교회에는 삶으로(롬 12: 1),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요 4: 23, 24)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차고 넘친다. 이상적인 교회에서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는 참된 예배의 모습과 예배자의 모습을 쉽게 만나게 된다 (요12장).

‘이런 예배가 얼마만큼 넘쳐나느냐’가 바로 이상적인 교회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이상적인 교회에는 믿는 자들을 위한 예배와 구도자를 위한 예배가 있다. 모든 예배는 믿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다. 그러나 우리들의 예배가 믿는 자들에게만 집중되었을 때 불신자들은 소외되고 구경꾼이 되기 쉽다. 믿는 자들만의 예배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적인 색채가 짙어져서 불신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이상적인 교회에서는 특별히 예수를 믿고 싶은데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구도자 예배가 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이다. 그것은 성령의 사건이요 말씀의 사건이다. 따라서 참된 예배 가운데 거하는 이상적인 교회에는 모든 사역이 흘러넘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따라서 이상적인 교회란 바로 예배공동체를 말한다.

2) 성령 공동체(성령 충만한 사역자)

사도행전 2장 1~4절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을 기록한 말씀이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성령으로 태어난 교회이다.

오순절날 약속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었고 성령의 불이 떨어졌다.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와 기름부으심과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들은 순식간에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다락방 안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어 뛰쳐나왔다. 길거리에 나와서 자기 나라 말은 물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도 했다.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으며 이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다시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성령님께서 하신 일을 서로 보고했다.

성령이 충만한 이들은 배고프면 함께 음식을 나누고 서로 필요하면 무엇이든지 나누었다. 그들은 서로 떠날 줄을 몰랐다. 사도들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또 다시 밖으로 나가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외쳤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그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들은 이렇게 외쳤다. 그리고 한마디를 붙이기를 잊지 않았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날 임한 성령을 통해 탄생된 교회의 시작이다.

오순절날 임한 성령님은 지난 2천년 동안 교회가 생길 때마다 계속 새롭게 더 크고 광범위하게 역사하셨다. 교회는 바로 성령사건이라고 정의해도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다.

이렇듯 이상적인 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져서 성령 충만한 평신도 사역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성령으로 열매맺는 성령공동체이다.

3) 선교 공동체(능력 있는 전도자)

이상적인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천국열쇠를 소유하고 있다. 천국열쇠는 지상의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축복과 특권이다.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가장 크고도 확실한 축복이다.

교회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일 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영혼을 천국의 문으로 인도 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 열쇠를 사용하는 것을 가리켜 전도요 선교라고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가정이나 민족이나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열쇠라는 것이다.

천국열쇠의 비밀은 무한하다. 주님의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전위대일 뿐 아니라 모든 민족의 축복의 근원이 된다.

온누리교회는 주님의 관점에서 시작한 교회이기에 주님께서 주신 이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기 위해 「2천/1만 비전」이란 목회철학을 가지고 있다. 주후 2005년까지 2천명의 선교사를 10/40창의 모든 미전도 종족에게 파송하며 1만명의 헌신자를 북한을 포함 이 땅의 모든 지경에 파송한다는 비전이다. 모든 온누리 성도들을 능력 있는 전도자로 세운다는 꿈이다.

이상적인 교회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선교공동체이다.